

2025년 8월 22일 금요일

날씨 비

1. 환경 실천 일기 - 안 쓰는 플러그 뽑기

저희 집은 제가 태어나서 전부터 주말이면 늘 할아버지 댁에 갔다, 할아버지는 올해 85세이시지만 여전히 새벽 5시에 일어나 운동과 하고 신문을 읽으실 만큼 규칙적인 생활을 이어가십니다. 그 습관 중에 하나가 바로 안 쓰는 플러그 뽑기입니다. 할아버지 댁은 늘 모든 플러그가 뽑혀 있습니다. 다시 꽂아야 하는 불편함에 할머니는 종종 귀찮다고 하고 저와 형, 부모님이 플러그를 꽂아둔 채로 두면 할아버지께 꾸중을 듣습니다. 어릴 때는 이런 할아버지가 싫었습니다. 집에 오셔셔도 꽂혀 있는 플러그를 발견하는 날은 절약에 대한 전소리와 긴 수업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3년 전부터 전 세제는 기후위기와 환경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며 다양한 실천 운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루의 날씨도 점점 더워지고 동식물의 생태주기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어쩌면 할아버지는 이런 상황을 미리 내다보신 건 아닐까요? 할아버지 세대부 부자친함과 절약 정신이야말로 지금 세대가 반드시 배워야 할 환경 실천 습관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찾아봤습니다. 플러그를 꽂아두면 사용하지 않아도 대기전력이 소모된다고 합니다. 현대인들이 버릇 하나로 TV를 바로 켤 수 있도록 편리함을 위해 낭비 전력입니다. 대표적으로 셋톱박스는 꺼져 있어도 무려 12.3W 대기전력을 사용해 전기 요금과 온실가스를 배출한다고 합니다. 단순한 낭비에 그치지 않고 더 많은 전기 생산 요구에 이산화탄소가 배출되어 기후변화를 가속화합니다. 귀찮음에 지불하는 댓가는 한 가구당 연간 2만 8천원(에너지 경제신문 25.1.8)과 환경오염입니다.

외출전 사용하지 않는 플러그 뽑기

벌티탭 전철 고기, 콘센트 주변 먼지와 습기 유수 체크!!

이제는 "구절은 습관"이 아니라 자구인이라면

함께 해야 할 습관이라 생각합니다.

저희 할아버지의 절약습관 지금 당장 같이 동참 하실꺼죠?



2025년 6월 25일 수요일 맑음 날씨

2. 친환경 제품 쓰기 실천일기

며칠 전, 지역 페어에서 친구들과 함께 환경 캠페인 활동을 하던 중 우연히 대나무 칫솔과 에코백을 선물 받았다. 평생 플라스틱 칫솔만 써왔던 나에게 나무 칫솔은 낯설고 신기한 물건이었다. 손에 쥐었을 때의 차가운 나무 결, 그리고 양치질 때 은근히 풍기는 나무 향은 생각보다 매력적이었다. 단순히 치아를 닦는 행위가 아니라, 지구를 위한 작은 선택이라는 사실이 마음을 묘하게 뿌듯하게 만들었다.

그 순간 예전에 호텔에서 처음 써보았던 샴푸 바가 떠올랐다. 액체 샴푸 대신 단단한 비누로 머리를 감는 경험이 처음엔 어색했지만, 할아버지와 할머니께서 "이거 옛날에도 다 쓰던 거야. 요즘은 더 예쁘게 나오네." 하고 웃으셨던 기억이 있다. 그때 나는 깨달았다. 우리가 '새롭다'고 부르는 친환경 제품은 사실 조부모님 세대에게는 일상이었음을 말이다.

돌이켜보면, 우리 사회가 지나치게 편리함을 추구하는 동안 잊고 지낸 지혜가 많다. 예전에는 플라스틱 수세미 대신 천연 수세미를 쓰고, 세탁 비누로 옷을 빨며, 세수비누 하나로 세안과 샤워까지 해결했다. 지금 보면 '친환경 제품'으로 불리는 것들이 사실은 과거의 보통 생활이었던 것이다. 환경을 위한 실천은 미래를 향한 발명 아니라, 과거에서 답을 찾는 화제일 수도 있음을 깨달았다.

나는 이것을 환경을 위한 레트로 문화 라고 부르고 싶다. 복고풍 음악이나 패션처럼 단순한 유행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옛 생활 방식에서 배운 친환경적 지혜를 다시 실천하는 것이다. 물론 현대 사회의 모든 편리함을 포기할 수는 없다. 하지만 그 사이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작은 변화는 분명히 있다. 대나무 칫솔을 쓰고, 샴푸 바를 고르고, 장바구니를 들고 다니는 습관이 사소해 보이지만 지구를 지키는 의미 있는 행동이다. 앞으로 나는 집 주변에서 어떤 친환경 제품을 더 찾아볼 수 있는지 직접 탐색해 보려고 한다. 또 환경을 위해 진정성 있게 노력하는 기업의 제품을 선택해 소비자로서 책임을 다할 것이다. 작은 습관의 힘을 믿고, 꾸준히 실천해 나갈 것이다.

오늘도 대나무 칫솔로 이를 닦으며 나는 다짐했다.



장려상

김지민 중학교 3학년

년 월 일 요일 날씨

환경 운동은 새로운 도전이 아니라 우리가 잊었던 익숙한 생활로의 귀환이다. 그리고 그 길 위에 나 혼자가 아니라 우리 세대 모두가 함께 서야 한다. 작은 발걸음이 모여, 지구의 내일을 지켜낼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



2025년 8월 11일 월요일

날씨 맑음

3. 일회용품 거절하기 실천운동

환경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늘 마음속에서 질문이 떠나지 않았다. 그러던 중, 내가 활동하는 봉사 클럽 헬핑핸즈가 환경부 장관님이 시작한 바이바이 플라스틱 챌린지에 다음 도전자로 지목되었다.

우리는 먼저 성남시 자연순환 가게를 알리는 홍보 영상을 제작했고, 학교에서 텀블러 수거 캠페인을 진행했다. 집안에서 더 이상 쓰지 않는 텀블러를 모아 판교 사회복지관의 장애 청년이 운영하는 가데에 기증하는 활동이었다. 한 달 600잔의 플라스틱 컵을 줄일 수 있다는 목표를 세웠다.

처음에는 다들 고개를 가웃했다. 하지만 발표를 통해 캠페인의 의미를 설명하고 꾸준히 홍보하자,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하나 둘 동참했다. 결국 100개가 넘는 텀블러가 모였다. 그러나 새로운 문제가 기다리고 있었다. 위생과 안전을 위해서 전용 세척기 꼭 필요했는데, 그 비용이 무려 600만원이었다. 포기하지 않고 우리는 성남시청, 여러 기관, 그리고 마사회에 도움 요청 메일을 보냈다. 마침내 지난 7월, 마사회에서 세척기를 기증해 주셨다. 그 순간의 감동과 뿌듯함은 아직도 내 마음을 뜨겁게 한다.

이제 내가 사는 지역에는 '조금 불편하지만 환경을 지키는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준비가 갖추졌다. 플라스틱 컵 대신 텀블러를 사용하는 작은 변화가 가능해진 것이다. 이 모든 것은 나 혼자 아니라, 함께 해줄 친구들과 손 내밀어 준 기관들 덕분이다.

나는 믿는다. 누군가 시작하면, 또 다른 누군가가 이어받아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 헬핑핸즈가 그 첫 걸음을 내디뎠듯, 앞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일회용품과 작별하기를 바란다. 작은 실천이 모여 미래를 바꿀 수 있음을 나는 오늘도 다짐한다.



2025년 7월 12일 토요일 맑음 날씨

4. 탄소배출 줄이는 탄소중립 실천일기

탄소중립은 우리가 배출하는 이산화탄소를 줄이고, 남은 양은 다시 흡수하거나 상쇄하여 실질적인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것을 말한다. 기후위기와 지구온난화가 점점 심각해지는 지금 탄소중립은 우리가 반드시 실천해야 할 것이라 생각했다.

그래서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고민해 보았다. 주변 친구들은 환경을 위해 분리배출을 열심히 하고 있지만, 실제로 아파른 분리수거장에 가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또한 처음의 나처럼 탄소중립이라는 말을 들어는 보았지만 정확한 의미나 실천 방법을 잘 모르는 사람도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 보자 봉사활동 친구들과 지역 행사에서 환경 캠페인 부스를 운영했다. 환경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환경요령에 대한 그림 전시도 하고, 올바른 분리배출 주제로 퀴즈 대회를 열고 또 간단한 환경 교육을 통해 사람들이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알리기도 했다. 직접 참여 활동으로 '환경실천다짐 키링 만들기' 체험도 마련했는데, 그날 만큼 내가 환경 활동가가 된 듯 뿌듯함을 느꼈다. 또한 사용하지 않는 물건, 입지 않는 옷들을 모아 플리마켓을 했고 판매 수익은 관공사회복지관 1인가구 어르신들과 저소득층 대상으로 기부했다.

환경 운동도 하고, 봉사도 하고, 기부까지 할 수 있었던 이번 정원은 그야말로 '굉장 먹고 알 먹는' 활동이었다. 무엇보다 시작이 어렵지, 한 번 실천하기 시작하면 그 활동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진다는 것을 알았다. 이번 정원을 바탕으로 친구들과 자주 이런 이벤트와 프로젝트를 해야겠다는 생각도 들었다. 재미있었다.



2025년 8월 28일 목요일

날씨 맑음

5. 30년 후 나에게 쓰는 환경일기

안녕! 너가 이 글을 볼 때쯤이면 고등학생 내 모습을 그리워하고 있을 것 같아. 더 많은 기회와 정형을 할 수 있고 미래를 바꿀 수 있는 시간이 있다는 것이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 오고 싶을 것 같아. 웹디자인을 좋아하고 3D 모델링을 하고, 코딩과 인딩에도 열정을 쏟고 있는 지금의 나. 미래의 나 역시 이런 분야에서 더 큰 꿈을 펼쳐서 살고 있겠지. 하지만 나는 기술만큼이나 환경에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 아무리 세상이 발전해도 우리가 살아가는 자아가 무너지면 모든 기술은 의미가 없으니까. 그래서 오늘 30년 후 너에게 나의 다짐과 바람을 전하고 싶어. 2055년의 너는 어떤 환경에서 살고 있니? 지금보다 더 깨끗한 공기와 맑은 하늘을 누리고 있니, 아니면 여전히 기후 위기와 싸우고 있니? 나는 2025년의 지금, 점점 더워지는 여름과 예측할 수 없는 날씨 속에서 살고 있어. 플러그 하나 뽑는 것조차 귀찮아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나는 작은 습관 하나가 미래를 바꿀 수 있다고 믿어.

나는 기술을 배우면서도 늘 고민해. "내가 만든 프로그램, 내가 디자인한 웹사이트, 내가 만든 로봇이 지구에 도움이 될까, 해가 될까?" 기술이 발전하면 삶이 편리해지지만, 동시에 에너지 소비도 커지고, 쓰레기도 늘어난다는 걸 알기 때문이야. 그래서 나는 코딩과 디자인을 하면서도 환경을 지키는 방법을 생각하려 해. 예를 들어, 전력을 덜 쓰는 효율적인 프로그램을 만들거나, 환경 교육에 도움이 되는 시각 자료를 블렌더로 제작하고, 그리고 얼마전 만들었던 재활용 청소 로봇을 만들어 사람을 대신해서 지구를 지키는 거지.

30년 후의 나도 이 고민을 놓지 않았으면 해. 단순히 "일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을 더 나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사람이길 바래. 너의 기술이 단순히 돈을 버는 도구가 아니라, 환경을 살리고 사람들에게서 경각심을 주는 도구라면 얼마나 멋질까? 어머니께서 말씀하셨지 "넌 세상을 바꾸는 아이야" 라고... 어때? 너가 바꾼 세상은 지금 보다 더 나은 세상이니?

나는 지금 작은 실천부터 하고 있어. 외출할 땀 플러그를 뽑고, 다용도 컵을 쓰고, 일회용품을 줄이려 노력해. 이런 습관들이 어찌면 사소한 보이지만, 30년 후의 지구를 지켜내는 데 큰 힘이 될 수 있다고 믿고 있어.

할아버지가 늘 말씀하시던 절약과 부지런함이 사실은 환경 운동의 시작이었다는 걸 이제야 알게 된 것처럼 말이야. 그리고 처음이 어렵지 시작하고 익숙해지면 누구나 다 함께하는 환경 실천 운동이 된다는 것을 말이야.



장려상

김지민 중학교 3학년

년 월 일 요일 날씨

2055년의 내가 이 글을 읽을 때, 부디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길 바란다. "그래, 네가 했던 작은 습관 덕분에 나는 지금도 깨끗한 세상에서 살고 있어"라고 말해주면 좋겠어. 혹시 세상이 여전히 힘들고 지구가 아파하고 있다면, 지금보다 더 큰 책임감을 가지고 행동해주기를 부탁한다. 너의 작은 노력과 애씀이 시간이 걸리지라도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넌 세상을 바꿀 멋진 아이니까!! 바다처럼 깊은 생각과 하늘처럼 넓은 생각을 태양처럼 열정적인 널 응원할게!!!

사랑하는 나야, 기술은 빠르게 발전해도 자구는 단 하나뿐이야. 너의 재능과 열정을 꼭 자구를 위한 일에도 쓰길 바라. 그게 곧 너 자신을 위한 길이니가. 지금 후회하고 있다면 먼 미래의 내가 아까워할 시간이니 열심히 화이팅!!!



GENIE RESTORATOR

Team Name: Green Genie



재활용수거로봇